

주간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KT그룹노조, 오늘 한국노총 가입

정윤모 위원장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추대



이슈 - 한국노총 가입 인준

KT그룹 노동조합이 드디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윤모 위원장은 4월 30일(화), 한국노총에서 KT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11개 그룹노조협의회 소속 노동조합의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이미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KT텔레캅과 KT링커스를 포함한 13개 전체 KT그룹노조협의회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KT그룹 3만 조합원을 가족으로 맞은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총 5만명으로 순식간에 규모가 늘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날 "KT노동조합은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가입을 계기로 ICT산업의 먹거리 창출과 창조경제 시대의 모범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KT노동조합과 KT의 원만한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음해와 조직외해를 일삼는 좌파세력의 모략을 단호히 차단함으로써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KT 3만 조합원을 따뜻하게 맞은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최두환 위원장은 “국내 ICT 노동자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하는 것이 ICT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전제이자 강력한 무기라는 것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제 하나가 된 5만 ICT 노동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실천력을 보이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실천력으로 ICT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19년만의 한국노총행은 서로간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노동가치를 생성하고,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이날 “KT 동지들의 연맹가입으로 교섭력과 투쟁력이 배가된 IT연맹은 장시간 노동, 밤샘근무 관행 등 ICT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바로잡고 복지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주체인 ICT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위원장, 연맹 공동위원장 추대

한편, 이날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윤모 위원장을 현 최두환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 직책을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저와 함께 ICT노동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총 단결하여 승리하는 한국노총의 새 시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동시가입 선언 11개 KT그룹노조 현황](현재)

조직명	조합원 수
KT 노동조합	24,526 명
케이티파워텔노동조합	154 명
케이티디에스노동조합	705 명
케이티렌탈노동조합	376 명
케이티하이텔노동조합	333 명
케이티네트웍스노동조합	292 명
KF&S 노동조합	223 명
케이티스노동조합	1,272 명
케이티 CS 노동조합	1,133
KT estate 노동조합	246 명
케이티셋노동조합	74 명

ICT노동자, 연대가 절실하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날 “KT노동조합만의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그 중요성과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더 큰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

KT그룹노조협의회 11개 노동조합의 연맹 가입을 환영하며...



오늘은 KT그룹노조협의회 소속 11개 노동조합, 3만 동지들이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친 역사적인 날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혁명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 들어 'ICT 강국 코리아'라는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 ICT 노동자들은 선배노동자들이 그랬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그 어디에도 정작 창조경제를 실행해 나갈 핵심주체인 ICT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KT그룹 동지들이 가입하면서 대정부 교섭력과 투쟁력을 배가시킨 IT사무서비스노련은 장시간 노동, 밤샘근무 관행 등 ICT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포괄하는 ICT 진흥정책 마련, C-P-N-D 생태계 내에서의 신규고용창출, ICT 생태계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통신시장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등에 적극 개입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인간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인간본위의, 인간중심의 ICT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맹은 집중할 것이다.

또한, KT그룹 노조 11개 노동조합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가입을 계기로 ICT 산업 진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ICT 산업 활성화와 통신시장의 먹거리 창출, 글로벌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하고, ICT노동자의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탬 것이다. 또한 KT그룹 노사 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경영위기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KT노동조합과 KT는 그 동안 원만한 노사관계로 상생협력의 모범이 되어 왔으나 조합원수가 20여명에 불과한 소수노조가 마치 2만 5천명의 KT노동조합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대외활동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모략을 일삼아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이런 일부 좌파세력의 근거 없는 음해를 단호히 차단해 조합원의 고용안정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과 공조해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분열과 혼란으로 휘청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KT그룹노조협의회 소속 11개 노동조합의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가입을 계기로 다시 '통합과 연대'의 큰 물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은 향후 KT동지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연맹 동지들을 대표해 KT동지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3년 4월30일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3/3